

SEPTEMBER 2023.  
No. 222

# INSS

## 전략보고

###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yonghwan@inss.re.kr  
이기동 수석연구위원  
kdlee@inss.re.kr

- I. 서론
- II. '신냉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 III. '신냉전'구조 활용구상의 특징 및 평가
- IV. 정책적 고려사항

#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 I. 서론

---

## II. '신냉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

1. 북한의 '신냉전' 담론
2. '신냉전'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인식

## III. '신냉전'구조 활용구상의 특징 및 평가

---

1. '신냉전'구조 활용구상의 특징
2. '신냉전'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 IV. 정책적 고려사항

---

#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저자 | 최용환, 이기동

## 국문 초록

북한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 혹은 '다극체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미러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에 주목하여,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의 특징은 첫째, 수동적 대외전략보다는 능동적 대외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북한과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한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기를 보유한 이른바 전략국가이자, 중러와도 대등한 강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공세적·모험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현재 북한은 공세적 핵док트린을 발표한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군사훈련을 서슴없이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 우선 외교로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미국 중심 단극체제인 상황에서는 북미관계가 북한 외교의 최우선 과제였으나, 냉전적 갈등구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북한은 북중, 북러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신냉전 구조를 일시적·국면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중러 연대의 취약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조성된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신냉전 활용구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냉전기와 달리 중러와 수교한 국가로서 한국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최근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고, 대북제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한중·한러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주변국 리더십 교체 등 다양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한 대비 역시 중요하다.

주제어: 신냉전, 북한, 대외전략, 동북아시아, 핵보유국

## I 서론

- 북한은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과 '다극화 추세'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
  -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중관계와 미러관계의 악화 국면을 활용하여 북중, 북러관계 강화에 주력
  -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구조가 심화될수록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전략공간이 발생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활용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 회피를 시도
- 또한 북한은 ICBM시험 발사 등 다양한 전략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러의 반대로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 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연이어 무산되자 북중, 북러관계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
  - 북한은 인권·양안관계·홍콩 및 신장-위구르 문제 등 다양한 미중 갈등 이슈에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 옹호
  -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의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빠르게 공인<sup>1</sup>하고, 이 지역과 헤르손·자포리자 등 러시아 점령 4개 지역의 러시아에로의 편입<sup>2</sup>을 신속히 지지
  - 북한은 최근 정전협정 70주년 열병식에서 중러 대표단을 김정은 좌우에 세워놓고 행사를 진행하는 등 북중러 연대를 과시
- 2023년 9월 전격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한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러 밀착이 향후 북중러 안보협력으로 확대될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신냉전' 국제정세 인식 및 활용구상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필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공식인정,” 『조선중앙통신』 (2022. 7. 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 10. 4)

## II '신냉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 1. 북한의 '신냉전' 담론

-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2022.12.26-31)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
  - 북한의 이러한 정세인식은 2021년과 2022년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이어 확고하게 자리매김
    - ※ 김정은은 2021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으로 변화된 것이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sup>3</sup>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2022년 시정연설에서는 “조선반도 주변 정세가 다극세계로 전환되고 있다”<sup>4</sup>고 평가
  - 이와 같이 김정은은 ‘신냉전’과 ‘다극화’ 또는 ‘다극체제’를 하나의 세트론으로 언급함으로써 ‘신냉전’을 현재의 국제질서로, ‘다극체제’를 다가올 미래의 국제질서로 상정
- 북한은 미국 주도 ‘블록화’가 ‘신냉전’ 초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반제·반미 진영화의 불가피성을 주장
  -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등 세계적 범위에서의 반제국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 대외환경을 유리하게 바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sup>5</sup>
  - 이를 통해 북한은 반제·반미 연대 및 전선구축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외환경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
- 탈냉전이 북한은 국제정세를 ‘다극화세력’ 대 ‘일극화세력’의 대립구도로 인식하는 가운데 다극화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로, 일극화는 국제관계의 ‘파쇄화’로 차별화
  - ※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다극화세력과 힘의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일극화세력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표면화”<sup>6</sup>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1. 9. 30)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 9. 9)

5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 1. 9)

6 “〈새로운 랭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 『조선중앙통신』 (2008. 6. 7)

- 냉전기 국제정세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동세력' 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 간의 대립구도로 인식<sup>7</sup>했던 것과 차이
- 탈냉전 초기에도 미국이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북한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신냉전'과 '다극화' 담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미국의 TMD(Theatre Missile Defence) 구축 시도가 나토와 같은 군사블록으로 이어져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sup>8</sup>
  -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도전국들에 의해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미국의 일방주의가 중국에는 실패할 것이라는 희망적 인식을 본격적으로 시현<sup>9</sup>
    - ※ “힘의 현존중에 사로잡힌 미국은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았으나 다극화추세의 도도한 전진에 부딪쳐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sup>10</sup>
  -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신냉전' 인식은 강화되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확신으로 발전

## 2. '신냉전'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인식

- 북한은 '신냉전' 구조를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국면적 구조로 인식
  - 북한은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이 '신냉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중·미러관계 악화라는 특정 국면에 더욱 주목
  - 북한은 탈냉전 이후 대미관계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두었으나, 미중·미러관계가 악화되면서 북중·북러관계 강화에 역점
  - 김정은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구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을 것”<sup>11</sup>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주어진 국면을 최대한 활용할겠다는 인식을 시사

7 박원근,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 Zoom & Connect* (서울: EAI, 2023), p. 1.

8 “Danger of New Cold War,” *KCNA* (March 12, 1999) <<https://kcnawatch.org/newstream/1452000473-988484615/danger-of-new-cold-war/>> (검색일: 2023. 8. 23)

9 박원근,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 Zoom & Connect* (서울: EAI, 2023), p. 3

10 <새로운 령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 『조선중앙통신』(2008. 6. 7)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 북한은 한미일에 비해 북중러 연대의 구심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3자를 묶을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 도출이 필요하다고 인식
  - 한미일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매개로 연계되어 있는 반면, 북중러는 상대적 약소국인 북한을 매개로 연계된 구조
  - 더구나 북중러 연대의 구심은 이념이 아닌 '반미', 그리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이익'이어서, 미중관계 개선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
  - 또한 중러관계는 역사적·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에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차나 개별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우려
    - ※ 북중러는 냉전기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결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분쟁과 같은 진영내 갈등이 존재
    - ※ 현재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러시아와 중국이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러 및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불분명한 상황
  - 따라서 북한은 이념적 연대의 취약성과 중러관계의 유동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동시에 공통의 가치 또는 이념과 이해관계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식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북한은 반(反)제국주의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먼저 결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 북한은 최근 북중 우의탑 내부를 개작하고,<sup>12</sup> 김정은이 '중국인민지원군' 묘지를 직접 방문<sup>13</sup>하는 등 사회주의 이념 기초한 연대와 반제(反帝) 투쟁의 역사를 강조
  - 북러관계에서는 '전승절'을 계기로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편, 전격적인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군사·안보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sup>14</sup>
    - ※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보스토치니 위성기지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전투기·군함 생산 시설을 방문

(2022. 9. 9)

- 12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수행에서 맺어진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의 과시; 우의탑의 내부개작공사가 완공된 것과 관련한 행사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 6. 29)
- 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로동신문』 (2023. 7. 26)
- 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푸틴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3. 9. 14)

- 또한 북한은 미국이 각종 군사훈련은 물론 '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난<sup>15</sup>

---

15 “나토확대는 새로운 재앙을 불러온다,” 『조선중앙통신』 (2023. 4. 7); “《오커스》는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허물고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23. 4. 7)

### III '신냉전'구조 활용구상의 특징 및 평가

#### 1. '신냉전'구조 활용구상의 특징

- 첫째, 수동적(reactive) 대외전략보다 능동적(proactive) 대외전략에 초점
  - ※ 김정은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신냉전 고착화 다극화 추세에서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
  - 우선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간 외교(inter-blocs diplomacy) 차원에서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후견메카니즘을 확보
  - 진영 내 외교(intra-bloc diplomacy) 차원에서는 북중, 북러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3자관계를 구축하고, 중러관계 사이의 틈새를 이용하여 양국 모두로부터 이익을 획득
  - 탈진영 외교 차원에서는 전 세계 사회주의국가들 및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
  
- 둘째, 핵무력을 앞세워 강대국들과의 위상관계 재설정
  - ※ 김정은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전략적 지위로 보나, 조성된 현 정세로 보나 제국주의 침략무력에 비한 우리의 확고한 군사적 우세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
  - 위 인용구에서 “지정학적 특성과 전략적 지위”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관계 설정 의지를 표명
  - 북한은 중·러와 자신의 관계를 대국과 소국 관계로 파악하던 과거 방식에서 변화하여 중러와의 관계를 대국과 강국 관계로 규정
  -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핵위협국과 핵피위협국의 관계에서 대등한 핵보유국관계(전략국가)로 재설정
  
- 셋째, '북한식 지정학적 현실주의' 추구에 따른 공세적·모험주의적 성향 강화
  - 위와 같은 강대국들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으로 강국(전략국가)으로서의 능력, 특히 군사력을 과시해야 하는 현실주의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공세적·모험주의적 성향을 강화
  -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한 핵불포기 및 선제공격 가능성 선언 △전술

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실시 등 핵무기 실전 배치 및 운용 능력과 의지 과시<sup>16</sup> △핵타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 실시<sup>17</sup> 등 핵위협 제고

- △공해상에서의 미군 정찰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 시사<sup>18</sup>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도발을 자제하던 관행에서 탈피,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sup>19</sup> 등 군사적 위협 수위를 고조

#### ■ 넷째, 미국우선 외교로부터의 변화

-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북핵협상 역사가 방증하듯이,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 단극체제 하에서 북한 대외정책은 북미관계에 초점
- 반면 최근 '신냉전' 구조하에서 북한은 북중·북러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극복하고자 노력
- 과거와 달리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북중·북러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향후 북미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북중러 연대에 기초한 진영화 접근법에 의존할 가능성

#### ■ 다섯째, '신냉전' 구조를 '일시적·국면적' 상황으로 판단, 현재 조성된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

- 우크라이나 전황(戰況)의 변화, 중러의 입장 변화 등에 따라 현재의 북러, 북중 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기를 활용하여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
- 진영 간에는 북중러 3자 연대 강화를 주도하여 이를 막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의 관여정책을 유도하는 등 지정학적 지위를 적극 활용
- 진영 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중러관계에 주목하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러 양국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이익 획득을 추구

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3. 10. 10)

17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 3. 20)

18 “파렴치한 도발행위를 정당화하는것은 지역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3. 7. 13);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23. 8. 18)

19 김지현, “北, 사상 첫 NLL이남 탄도미사일 도발·다른방향 10여발 발사,” 『연합뉴스』 (2022. 11. 2)

## 2.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은 중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안보-자율성' 교환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sup>20</sup>
  - 북한과 중러는 상대적 국력격차가 큰 비대칭적 관계이므로 북한의 대(對)중러 안보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구조<sup>21</sup>
  - 북한과 중러 간 이해충돌 발생시 북한의 대외정책 자율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
  - 중러 사이에도 역사적·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가 존재하며, 양국 간 국력격차에 따른 불안정 요인들이 내재<sup>22</sup>
  
- 북중러 연대는 진영 내 잠재적 갈등요인들의 산재로 인한 취약한 3자구조
  - 현재 중러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장기화가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등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불편한 관계를 유지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유엔총회 러시아 구탄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지만 유럽과의 대립을 원치 않는 중국은 연루를 회피하는 상황
  - 자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국으로서는 냉전적 갈등구조 심화에 따른 서구와의 단절이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
  -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중러 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

20 James D. Morrow,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 (November 1991), pp. 904-933.

21 최용환,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INSS 전략보고』 No. 173 (August 2022), pp. 10-11.

22 CSIS, "What Are the Weaknesses of the China-Russia Relationship?" (June 29, 2022) <<https://chinapower.csis.org/china-russia-relationship-weaknesses-mistrust/>> (검색일:2023. 8. 24); Ian Johnson, "Has China Lost Europe? How Beijing's Economic Missteps and Support for Russia Soured European Leaders," *Foreign Affairs* (June 10, 2022)

-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은 중러 사이에서 일종의 헤징전략과 연계될 가능성
  - 북한은 냉전기에도 중소분쟁을 활용하여 헤징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줄타기외교' 또는 '시계추외교'를 전개
  - 중국에 대한 북한의 오랜 불신을 고려할 때, 최근 북러관계 강화 추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군사협력 필요성 이외에 중러 사이에서 북한의 헤징전략일 가능성<sup>23</sup>
    - ※ 북한은 1956년 8월 중파사건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 베트남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거부, 미중 수교, 한중 수교, '고난의 행군'기 중국의 방관, 대북제재 가담 등 중국에 대한 전통적 불신이 존재
  - 최근 미중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관리(de-risking) 동향은 북한이 중국의 중국의 태도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
  
- 중러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sup>24</sup> 비핵화 공감대, 한국과의 관계, 북한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른 전략적 부담 등은 북중러 3자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러는 핵비확산조약(NPT)의 책임있는 P5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핵비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해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러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보다 관계 유지가 국익에 부합
  -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전략도발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서태평양에서 미군 증원과 전략자산 전진 배치로 이어지는 한편, 불필요한 연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
  
-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은 중러와의 양자관계 발전 및 북중러 3자연대 강화라는 일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
  - 대북 식량·비료·에너지 지원을 넘어 첨단 군사분야 협력까지 북중·북러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중러의 지원만으로 장기 발전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역부족

23 황일도, "최근 북한의 중장기 국가비전 언급: 대외·경제정책과의 연관성,"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37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12. 5), p. 20.

24 Sungmin Cho and Oriana Skylar Mastro, "North Korea Is Becoming an Asset for China," *Foreign Affairs* (February 3, 2022)

## IV 정책적 고려사항

- 한국으로서는 북핵위협 대처에 불가피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병행하여, 북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대외관계를 관리할 필요
  -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비핵화가 중리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공동의제가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컨센서스를 형성
  - 특히 한국은 중리와 수교국가이자 주요 교역파트너라는 점을 활용, '신냉전' 구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중리와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
  - 이의 일환으로 한미·한미일 간 안보협력 제고 수준에 조응하여 한중, 한러 간 전략대화 수준과 빈도를 제고하고 확대
- 북중, 북러 관계 강화로 인한 대북제재 무력화 혹은 제재 효과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북한과 직접 접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재 효과 감소 우려
  - 현존 대북제재에 모두 찬성한 국가이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제재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
- 최근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처가 긴요
  - 중단기적으로는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안보협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중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장기 비전과 전략을 준비할 필요
-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 구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장기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가 매우 긴요
  -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긴장 조성은 김정은·김여정 등 소수의 최고지도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오판에 따른 국지충돌 우려 증가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 및 확장방지구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

- 주변국 리더십 교체 등 다양한 안보 상황변화 가능성 대비
  - 2024년은 일본의 중의원선거, 대만의 총통 및 입법의원 선거,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결과에 따라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
  -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여부와 종결 방식 등에 따른 국가 간 관계 변화 가능성은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 위기 지속 여부와 파장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
  - 물론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이 단기에 해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

## 참고문헌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 9. 3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3. 9. 1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3. 8. 15)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로동신문』 (2023. 7. 2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 10. 10)
-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23. 8. 18)
-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수행에서 맺어진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의 과시; 우의탑의 내부 개작공사가 완공된것과 관련한 행사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 6. 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 10. 4)
- “〈새로운 팽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 『조선중앙통신』 (2008. 6. 7)
- “나토확대는 새로운 재앙을 불러온다”. 『조선중앙통신』 (2023. 4. 7)
-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 1. 9)
- “《오커스》는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허물고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23. 4. 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 9. 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 9. 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공식인정”. 『조선중앙통신』 (2022. 7. 14)
- “파렴치한 도발행위를 정당화하는것은 지역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3. 7. 13)
-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 3. 20)

김지현. “北, 사상 첫 NLL이남 탄도미사일 도발·다른방향 10여발 발사”. 『연합뉴스』 (2022. 11. 2)

박원곤.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 Zoom & Connect* (서울: EAI, 2023)

최용환.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INSS 전략보고』 No. 173 (August 2022),

황일도. “최근 북한의 중장기 국가비전 언급: 대외·경제정책과의 연관성”.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37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12. 5)

“Danger of New Cold War”. *KCNA* (March 12, 1999) <<https://kcnawatch.org/news-tream/1452000473-988484615/danger-of-new-cold-war/>> (검색일: 2023. 8. 23)

Cho, Sungmin and Oriana Skylar Mastro. “North Korea Is Becoming an Asset for China”. *Foreign Affairs* (February 3, 2022)

CSIS. “What Are the Weaknesses of the China-Russia Relationship?” (June 29, 2022)

<<https://chinapower.csis.org/china-russia-relationship-weaknesses-mistrust/>> (검

색일:2023. 8. 24); Ian Johnson. “Has China Lost Europe? How Beijing’s Economic

Missteps and Support for Russia Soured European Leaders”. *Foreign Affairs* (June

10, 2022)

Morrow, James D.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 (November 1991).

pp. 904-933.

## Abstract

## North Korea's plan to utilize 'neo-Cold War' structures

Yonghwan Choi, Geedong L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North Korea has characterized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s a "neo-Cold War" or "multipolar system" and is actively trying to capitalize on this change. Noting the deterioration of U.S.-China and U.S.-Russia relations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war in Ukraine, North Korea seeks to overcome pressure from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strengthening the DPRK-China and DPRK-Russia relationship. North Korea's plan to utilize the neo-Cold War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first, an emphasis on an proactive foreign strategy rather than a reactive foreign strategy. It seeks to actively create a favorable international situation. Second, it resets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great powers. North Korea perceives itself as a strategic state with nuclear weapons and as an equal power with China and Russia. Third, offensive and adventurist tendencies are prominent. Currently, North Korea has announced an aggressive nuclear doctrine and is conducting military exercises that presuppose the use of nuclear weapons. Fourth, North Korea is attempting to move away from U.S.-focused diplomacy. Wh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as a unipolar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ere the top priority of North Korea's diplomacy, but under the neo-Cold War structure, the North-China-Russia factionaliz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North Korea's diplomacy. Fifth, North Korea recognizes the neo-Cold War structure as a temporary situation. North Korea is well aware of the fragility of DPRK-China-Russia solidarity and is wary of over-reliance on China and Russia.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plans to leverage the neo-Cold War, it is first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neo-Cold War structure that favors North Korea does not become entrenched. Unlike the Cold War, South Korea should utilize its advantages as a country with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Second,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crucial.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likely to deepen the factionalization of South Korea-U.S.-Japan, and DPRK-China-Russia. Third, we need to block the rapidly intensify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manage South Korea-China and South Korea-Russia relations to ensure tha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not weakened. Finally, it is also important to prepare for various changes in the security situation, such as the end of the war in Ukraine and leadership changes in neighboring countries.

Keywords: neo-Cold War, North Korea, Foreign Strategy, North East Asia, Nuclear Weapon State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INSS

## 전략보고

SEPTEMBER 2023.  
**No. 222**